

## 한 부모 가정 외동 자녀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이 효 정\* 김 규 보\*\*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에 언급된 한 부모 가정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묘사를 기반으로, 현대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와 저출산의 이유로 한 부모와 외동으로 구성된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 내에서도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교회 돌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 부모 가정에서 외동으로 성장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Mandelbaum의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적 경험과 의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로 삶의 영역에서 부모, 가난, 편견에 대해 다루었고, 특히 부의 부재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목하였다. 전환점으로는 부모자녀간 갈등 증폭과 모와의 관계에서 '부모화' 혹은 '유모화'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었다. 또한 적응의 차원에서는 참여자 간 독립과 갈등 해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자원 탐색에 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고는 한 부모 가정의 외동 자녀에 대한 상담이 조기에 개입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좋은 어른에 대한 대리적 경험, 참 아버지되신 하나님 경험을 통한 신앙적 지원, 공동체의 역할 강화, 현실적인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교회 돌봄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한 부모 가정, 외동, 내러티브 연구, Mandelbaum, 교회 돌봄

\*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경적상담학 박사과정, 제1저자

\*\*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조교수, 교신저자

## I. 여는 글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임한다. 성경은 한 부모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곳곳에서 묘사한다. 아브람은 아내 사라의 무자성(無子性)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창 16:15-16). 그러나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났다. 하갈 모자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만을 가진 채 브엘세바의 거친 광야에 버려졌다(창 21:14). 인적도 없고 추운 광야에서 하갈은 물이 떨어져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절규했다(창 21:14-16). 이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 물을 찾아 아이를 구하게 하셨다. (창 21:18-21).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르밧 과부 모자에게도 나타났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줌을 한 과부를 만나게 된다. 과부는 가난을 견디다 못해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기로 결심한 상태였다(왕상 17:12). 엘리야는 그런 과부에게 떡을 만들라 하고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죽을 위기에서 건져낸다(왕상 17:12-16). 하나님은 성경 속 한 부모 가정인 하갈 모자와 사르밧 과부 모자의 고난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절망적 상황에서 건져내셨다.

과거 성경 속의 한 부모 가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한 부모 가정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한 부모 가정의 외동으로 구성된 가구는 계속되는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의 비율은 2020년에는 153만 3,000가구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7.1%가 한 부모 가정이며, 가구원 수는 평균 2.8명으로 자녀 1명이 57.0%, 2명이 36.9%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6.9%로 감소하였으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교회 안에서도 한 부모와 외동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적인 돌봄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동안 한 부모 가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한 부모 가정의 부모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이의빈(2022)은 부모의 양육 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류금란(2019)은 한 부나 한 모로서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오승하, 문수경(2015)은 한 부모 가정의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양육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 부모 가정의 자녀에 관한 연구로서 이명순(2006)은 한 부모 가정 자녀

와 양부모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관하여 비교하였으며, 김종희(2011)는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박현정, 이기연(2015)의 연구에서 한 부모 가정의 자녀는 가난과 같은 결핍보다 한 부모와의 관계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 부모 아래 외동으로 구성된 가정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한 부모 가정에서 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한 부모 가정의 외동에 대해 더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부모 가정의 외동은 기본적인 돌봄 기회가 적고, 가족 결손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사회적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의 외동은 대인적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나 행동 통제 및 정서적 친밀감 영역에서 공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의 외동이 자라면서 겪는 경험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외동 청년들의 경험을 Mandelbaum의 내러티브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담적 지원 및 교회의 돌봄 실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한 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미혼모의 발생, 배우자의 장기 복역이나 가족의 불화로 배우자가 가출한 자 등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가정을 포함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2021년에 시행된 한 부모 가족 지원법(법률 제17754호)은 모자 가족과 부자가족을 통합하여 '한 부모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한 부모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서는 그들을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가족의 해체를 직접 경험하며 성장한 자녀들은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양부모 가정에 비해 심리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자기 유리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민하영, 이윤주, 김경화, 2008). 또한 부모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의 변화,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소외감, 상실감 등 다양한 기능적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현지수, 이아라, 2020). 이로 인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가족 해체로 가족 구조가 급변하면서 다양한 정서적 역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은 부모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 역할의 전이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모화'는 자아 분화를 어렵게 하여 심리적 독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는 한 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의 과정이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역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한 부모 가정 자녀가 겪는 문제는 다면적이다. 가족의 해체로 인한 경제적 빈곤, 우울, 정신적 어려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의 보고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54.4%로, 받지 않는 일반 가구도 45.6%로 절반 이상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2017)에 따르면 이혼 가정 자녀의 경우 외현화 및 내면화된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문성희와 이대균(2011)의 연구에서는 한 부모 가정이 편견에 의해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남현주 등(2013)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한 부모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단기적으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경제적, 심리적, 대인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러한 어려움이 아동,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조기 개입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상담 및 지원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교회 및 다양한 지역사회에서도 돌봄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경험과 현실 적응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측면을 탐구하고자 한다.

## 2) 한 부모 가정의 외동

외동아는 다른 형제가 없이 단 하나뿐인 아이를 말한다. 최근에는 점점 외동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9년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 자료에 따르면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동 1명만 있는 가구가 50.8%로 가장 높았다. 아동 가구에서 외동이 크게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동은 형제가 없으므로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다. 거기에 부모가 한 명일 때 상호작용은 훨씬 줄어들어 한 부모 가정에서 외동으로 자라게 된다면, 성격 형성과 정서적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Bayrakal & Kope(1990)는 편부모 가정에서 "외동"인 12명의 청소년 입원 환자를 성별, 가족 소득 및 진단에 대해 일치된 청소년 환자의 통제 그룹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일부 한 부모 가정의 외동에서는 대인관계의 기능장애가 있었고, 이는 데이터의 통계 분석에서 한 부모 가정의 외동 청소년이 대조군보다 더 큰 정도의 장애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Khadaroo & Ameerah(2018)은 한 부모 가정은 한 자녀에게 관대한 양육과 자녀 애지중지, 강압적인 양육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보고하며 청소년 외동 아동은 자기 연민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우정을 사용하여 직면한 외로움에 대처한다고 보고하였다. Chan-OB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신경증에 대해서는 형제자매가 있는 개인과 없는 개인 사이에서 형제가 없는 개인, 즉 외동이 훨씬 취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Bogolub(1984)는 편부모 하위 유형 중 한 모와 외동 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녀와 공생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한 모의 외동 자녀는 유아적인 의존상태에 있게 되며 정신적 미성숙 상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최진희(2011)는 초등학교의 형제 구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와 우울 대응 행동의 문항별,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는데,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확률이 높았으며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경우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행동을 하였다. 특히,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 중에서 외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외동이 우울 수준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외동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며 심리적 외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 부모 외에는 거의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울이나 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 부모는 한 자녀를 돌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가 미성숙하고 자기애적이며, 유아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부모의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해소함으로써 자녀가 일찍이 부모 역할을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부모 가정하에서 자란 외동아를 대상으로 2인 가족 역동과 청년의 심리 내적 정서 및 적응 과정을 내러티브 연구

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3) 교회 돌봄

종교개혁자 John Calvin(1559)은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교회 돌봄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독교강요에서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Calvin, 1559).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로서 현재 참여하는 지역교회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성도를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 돌봄은 교회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신앙적,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예배, 성경 공부, 기도 모임뿐 아니라 심리지원, 생활 도움, 의료서비스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박영범(2022)은 교회는 돌봄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부여받았으며 오직 교회만이 영속하는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주장한다. 영원한 생명수(요 4:13)인 예수를 통해 변화와 회복의 동력을 얻기 때문에 한 시대에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제공해 주는 세상의 제도 및 복지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돌봄은 세속적 가치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사람을 도구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실천이다.

현대 교회는 다양한 돌봄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려 노력한다. 교회 내 상담실을 설치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돕고자 하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 제공, 청년 세대를 위한 세계관 교육 및 집단 프로그램, 부부와 가정을 위한 사역, 노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등 다양한 돌봄의 형태가 교회에 존재한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부모 가정의 외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돌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1) 내러티브 연구

내러티브(narrative) 연구는 이야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서사학(naratology) 또는 서사 이론(narrative theory)이라고 하며, 이야기가 우리의 이해와 경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내러티브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는 장치, 전략, 관습을 통칭하여 이야기를 연속된 장면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러티브는 서사물의 최종적 결과물이 될 수 있다. Fiske(1989)는 내러티브를 우리가 사

물과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며, 동시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하였다. 내러티브는 단편적인 사건들을 엮어 구성하기도 하며 이는 의미와 현실을 만들어 낸다. 내러티브 연구는 질병의 내러티브와 같이 연구되는 현상일 수도 있고 혹은 말한 이야기를 분석하는 절차로서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Creswell & Cheryl, 2015).

Mandelbaum(1973)은 내러티브 연구의 한 접근 방식으로, 기존의 생애사 연구가 한 개인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 구조와 사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더 체계적인 분석을 제안했다. 그는 한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삶의 영역, 전환점, 그리고 적응 순으로 분석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은 상호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인의 삶을 유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삶의 영역(dimensions)에서는 한 개인의 삶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직업, 가족관계,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둘째, 전환점(turnings)은 한 개인의 삶의 전환을 분석할 때 구체적 내용과 사회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인 상황도 함께 분석한다. 셋째, 적응(adaptations)분석은 삶의 영역과 전환점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적응 전략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개인의 삶의 전략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 방법은 단순한 서술적 수준이 아니라 심층적 수준에서 삶의 다차원적인 영역을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담 및 돌봄 실천에 통찰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Mandelbaum의 3차원 분석틀을 기초로 한 부모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자라 온 청년의 삶을 분석하였다. 삶의 영역에서 부모, 가난, 사회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전환점에서는 사춘기 실패와 좌절의 경험, 증폭되는 모·자녀 갈등, 심리적 문제의 외현화 과정을 분석하고, 적응에서는 자원의 탐색, 자립과 밀착의 관계, 수용과 통합 및 여전히 분열된 채 살아가는 삶을 분석하였다.

## 2) 연구 절차 및 연구윤리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의 학생상담실의 내담자 2인으로 한 부모 가정에서 외동으로 성장했으며, 이혼한 한 부모 가정에 해당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의 한 부모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두 참여자는 생애사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으나 상담 과정 중에서 적응의 측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두 참여자의 차이를 만들어 준 요인을 알아보고자 비교분석을 위해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연

구참여자 선정에 관한 전문가(교수)의 감수를 받았다.

연구 시작 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해도 좋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2023년 3월 9일 이후부터 일주일 한번 50분간 각, 총 10회 상담을 진행했으며, 본 연구를 위해 2023년 5월 2일 1회 2시간씩 인터뷰 진행하였다. 장소는 평소 상담이 이루어지는 학생상담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는 학술논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할 것과 비밀보장을 고지하였다. 설명서를 2회에 걸쳐 읽고 참여에 동의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출생부터 대학 진학에 이르기까지 개방형의 형태로 면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자료수집으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동의를 얻었으며 필사본으로 전사하였다. 윤리성을 고려하여 인터뷰 비용을 지불하였다. 연구의 엄격성을 위하여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만난 내담자들로서 철저한 비밀보장을 유지하며, 녹음과 전사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고 연구 과정 중에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중도 탈락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그 의사를 존중함을 고지하였다. 상담 기관을 통하여 상담자의 연구계획동의서를 작성했으며, 참여자들의 인권 존중한다는 서명의 절차를 밟았다.

### 3. 연구 결과

#### 1)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참여자1은 23세, 여자 청년으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참여자가 기억나지도 않는 어린 시절부터 부는 안 계셨으며, 모의 친정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거의 유일한 가족인 모와 함께 지금껏 살아왔다. 7세 이전까지는 모가 일해야 해서 친척 집, 육아도우미 집 등 여러 곳에 맡겨져서 길러졌다. 강압적인 성격의 모와 자주 부딪치며 모 성격을 맞추고 살아야 했다. 이사도 여러 번 다녀야 했으며 원룸 같은 곳을 거쳐 정부의 지원으로 주거 혜택을 받아 집을 옮길 수 있었다. 어린 시절에 모가 일을 가면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 많았으며, 식사는 거를 때도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 부에게 연락이 와서 전화 정도 하고 지내는 사이이다. 불쌍한 처지의 부를 이해하다가도 어린 시절 자신을 모른척했던 부에 대한 원망감이 있다. 중학교 시절부터 상담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상담, 대학교 학생상담실에서 상담경력이 있으며, 힘든 시기마다 상담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왔다. 참여자2는 21세 여성 청년으로,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어린 시절부터 부는 없었고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다. 가

끔씩 모의 가족들을 만나긴 했지만 대부분 지방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다. 참여자2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나 그림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모는 그 재능을 계발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원에 보내주었다. 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있다. 모가 일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집을 잘 나가지 않는 편이었다. 모는 강압적인 성격으로 참여자의 의사를 잘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원을 등록하거나 진로를 결정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2는 반항하지 않고 자랐으며, 이로 인해 내면에 화와 우울감이 쌓였다. 참여자2는 이전에 상담 경험이 없으며, 대학교 진학 후 학생상담실을 방문하여 10회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 (1) 삶의 영역

#### ① 부모(부의 부재 / 고맙고 무서운 존재 엄마)

두 참여자는 어린 시절의 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초기 기억에서부터 부는 없었다. 살면서 부의 부재는 참여자들의 아동기 성장에서 불안과 긴장을 키우는 요소가 됐다. 참여자1의 모는 일하기 위해 자녀가 7살이 될 때까지 여기저기 맡겨야만 했으며, 참여자1은 이에 늘 주거에 불안정함을 느꼈다. 참여자2는 여자인 모와 단둘이 살면서 안전에 늘 취약했으며, 긴장을 많이 느끼며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유아기 때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나를 이 집 저집에 맡겨야 했어요.”(참여자1)

“여자 둘이 사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빠가 있으면 안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무서워가지고 키웠던 동물도 있었어요. 이게 털 무섭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2)

또한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부터 부의 부재를 더 크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주변의 양부모가 다 있는 집과 은근히 비교하게 되고 자신도 좋은 부가 생겼으면 하는 부러움과 존재하지 않는 부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갔다. 그러나 그리워해도 오지 않는 아빠, 상상 속의 아빠는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삶에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했다.

“그 친구는 이제 아빠랑 같이 사는데 아빠는 완전 일을 많이 나가긴 하지만 엄청 그 친구를 잘 챙겨 주셨었고... 좀 비교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참여자1)

“나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부모들을 보면 그 사람이 아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긴 하죠.” (참여자2)

부가 부재한 것은 가정 내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모와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자가 없었으며, 모가 화를 내며 쏟아내는 감정과 폭력적인 훈육 태도는 고스란히 참여자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엄하게 키우려고 했던 건데 제가 들었을 땐 그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심하게 혼냈어요.”(참여자1)

“엄마가 말하면 거의 다 듣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엄마의 영향력이 많이 컸어요. 이제 엄마랑 싸우고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엄마랑 싸우면 또 혼자 화해 해야 되고 이러니까”(참여자2)

참여자1의 모는 참여자가 7살이 되기 전까지 참여자를 여기저기 맡기면서 다양한 일을 전전했다. 중졸의 학력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으며 한 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바로 일을 그만두었으며,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참여자2의 모는 오전에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는 등, 늘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모는 항상 바빴다고 말한다. 일도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하며, 참여자들을 집에 혼자 둔 일이 많다. 이에 방치된 느낌을 받으며 성장해야 했고 모가 주말에는 함께 해 주려고 했으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외로움은 늘 참여자들 몫이었다.

“정말 게임만 종일하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엄마는 밤에 오셨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밤도 굶었어요. 아니, 거의

저녁은 못 먹었어요.” (참여자1)

“학교에 갔다오면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항상 같이 있어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엄마가 올 때까지 항상 혼자 있었어요.”(참여자2)

또한, 참여자들의 모는 자녀들을 종종 때리며 혼욕했고 주변에서 이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이에 모의 언어폭력이나 작은 행동도 훨씬 큰 두려움이 되었고 모의 화나 부정적 감정들이 고스란히 참여자들에게 전달이 되었다. 두 명의 참여자들은 모가 혼욕했던 어린 시절을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도 모의 표정과 눈빛을 신경 쓰며 모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다. 이는 모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참여자1은 모에게 깊은 죄책감이 있으며, 참여자2는 엄마의 말은 다 맞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복종적인 태도를 학습했다.

“내가 조금 뭔가 잘못하면 맞았어요. 아동학대일 정도로 이거 가정폭력이다...그러면서 이게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 그러면 엄마는 ‘진짜 가정 폭력이 뭔지 보여줘?’ 이러면서...좀 같등이 점점 심해졌죠.”

“우리 집안이 남들과는 좀 다르다고 인식이 됐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저도 이제 알고 있으니깐 엄마를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힘들게 키워주시는데...”(참여자1)

“엄마가 발표회도 강압적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엄마 말에 거역을 못하면 제 방에 혼자 가서 올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주는지... 엄마가 화를 내는게 무서워요. 누군가 내 옆에 편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죠. 거역한 적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말이 다 맞으니까요. 다 나 잘되라고 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다는 것도 말 못해요. 아무튼 거역하고 싶지 않아요.”(참여자2)

참여자들은 그래도 하나뿐 가족인 모에 대한 애뜻함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

서는 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싫어하다가도 그런 모에게 애정을 갈구하며 인정받고 싶다. 또한 하나뿐인 가족과 이별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자신을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데도 나를 키우고 있다는 것 자체에 좀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좀 약간 정말 수그러야 했던 존재라면 이젠 좀 자의적으로 그래 싸워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내가 좀 참자 그래 엄마도 많이 힘든가 보지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게 됐어요.”(참여자1)

“엄마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늘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내가 잘하는게 있으면 힘들어도 시켜주고 좀 강제적인 것이 있었지만 내가 더 잘하도록 대회도 알아 봐주고 다 나를 위한 것이긴 하죠. 어릴 때 같이 있어주려고 애를 썼어요.”(참여자2)

이처럼 모에게 갖는 분명한 양가감정으로 인해 참여자들의 내적 갈등은 매우 높았다. 이는 모를 향한 죄책감을 불러 일으켰다. 나를 위해 살아 준 모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참여자2는 “엄마에게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어요.”라고 말하였는데 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갈등을 만들고 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내재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 ② 가난(참고 포기하고 / 정부의 지원)

두 참여자의 삶의 영역에서 두 번째는 가난이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무조건 참아야 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으면서 가난을 통해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야 했다. 좋아하는 것을 해보지 못하고 때론 남을 부러워했으며 비교하는 마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했고 포기과 좌절을 경험하게 했다.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대학 가고 이려는 것도 결국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미술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강제적인 포기죠”(참여자1)

“저희 집을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애들은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살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파트에 산 적 한 번도 없어 가지고 동이나 호수 사용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부러울 때도 있었고 좀 다른 애들이랑 차이도 많이 나고, 저희는 돈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살 돈조차 없어 가지고 저는 되게 싫었어요.”(참여자2)

또한 참여자들은 한 부모 가정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어느 정도 다른 가정에서 누리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등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게 되고 특히 학업에서만큼은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할 만큼 공부하는 것에는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급식이랑 우유도 저소득층 가정이라서 그냥 보내주고 있고 방과 후 교실이나 심지어 컴퓨터마저도 주니까 저는 정말 남들에 비해 부족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게 우리 엄마가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착한 사람들이 준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그런 걸 받아야 될 만큼 좀 집이 어려운 상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참여자1)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걸 받는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약간 주민센터에서 먹을 거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제 돈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원 다닐 수 있었어요. 고마웠죠.”(참여자2)

### ③ 사회관계(친구 / 편견)

두 참여자들에게 친구는 중요한 삶의 영역이다. 유일한 가족인 모 외에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며, 혼자 지내던 무수한 시간들 속에 함께해 준 소중한 존재이다. 친구를 통해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며, 때로는 친구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꼈으나 함께 놀고 시간을 보내며 부족한 상호작용을 하고 일상성을 회복하게 해 준 고마운 대상인 것이다.

“중학생 때는 진짜 약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친구들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지금도 고맙고 지금도 만나고”(참여자1)

“초등학교 4~6학년에 친구들이랑 자주 놀았어요. 집에 혼자 있는거보다 재밌으니까.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제일 친해요. 그 친구들이 있어서 견뎠죠”(참여자2)

두 참여자 모두 인터뷰 내용에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사회 대인관계가 막 시작할 무렵부터 한 부모 가정인 사실을 비밀로 한 적이 없으며,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도 당당히 말했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선생님들도 이에 편견이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으며, 친구들도 한 부모 가정인 것을 자신과 놀지 않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두 참여자의 삶의 경험에서 한 부모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편견과 주위의 시선으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친구들을 사귀는데 거리낌이 없고 자주 친구들의 집에서 놀면서 사회관계를 맺어가는데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은 두 참여자의 삶에 긍정적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 부모라고 말하는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감추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한 부모인 다른 친구도 있어서 그런지 괜찮았어요”(참여자1)

“엄마랑 둘이 산다는 말을 가끔 했는데 별로 이상하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 같아요”(참여자2)

## (2) 삶의 전환

### ① 사춘기 실패와 좌절의 경험

참여자1은 한 부모 가정으로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문제로 모와의 갈등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1은 담임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담임선생님은 '가족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라'라고 말하며 도움을 거절했다. 이 상황으로 참여자1은 '나는

의지할 곳이 없고, 완전히 혼자인 것 같다'라는 인식을 얻었고, 이로 인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크게 느꼈다. 참여자2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자신의 재능을 계발했지만, 번번이 좌절을 겪으면서 세상의 벽을 느꼈다. 참여자2의 모는 학원 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참여자2에게는 통보식으로 말했으며, 이런 결정들은 참여자2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좋아하는 분야와 꿈에 대한 진지한 대화 상대가 부족했고, 모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에 참여자2를 밀어 넣었다. 이에 참여자2는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 고립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다.

“엄마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너희 가정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했을 때 약간 정말 세상에 고립된 느낌을 받았어요. 날 도와줄 어른은 아무도 없구나.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를 지켜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1)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아역배우를 해보라고 시켜줬어요. 근데 자라면서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엄마가 시켜서 판소리를 배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가지고 그만두었어요. 중략... 엄마는 강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면 나한테 무조건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주변에서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여자2)

## ② 깊어진 모와의 갈등

고등학교 시기에 참여자1과 참여자2는 모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시기를 맞이했다. 참여자1은 장학금 문제를 놓고 모와 충돌했다. 모는 장학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지만 참여자1은 이를 자신의 학원비로 사용하고 싶어 했다. 이로 인해 모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일방적인 모의 태도로 좌절감을 경험해야 했다.

한편, 참여자2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에 관심이 있음을 모에게 표현했지만 모는 반대했다. 이에 참여자2는 '다른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나를 뒷받침해주는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참여자2는 모에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모의 말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모는 참여자2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

로 결정을 내렸으며, 모는 '내가 알아봐 주는 것은 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로 참여자2에게 모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나쁜 딸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위와 같은 갈등 속에서 참여자1은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함을 느끼게 되었고 참여자2는 모와의 문제를 외면하고 내면으로는 더 큰 우울과 화가 자신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감정은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함이었다.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크게 엄마랑 싸웠어요. 그때 엄마가 이해가 정말 안 가고 그냥 강압적이고 좀 떨어진 거 같아요. 그러면서 좀 떨어진 것 같고 좀 멀어졌어요. 고2 때 정말 심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참여자1)

“엄마한테요 화 못 내요. 왜 엄마가 화를 내는 게 더 무서워가지고 저랑 화를 못 내요. 내보고 싶어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못 내봤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화를 안 내봤어요.”(참여자2)

### ③ 심리 내적 어려움의 외현화

홀로 방치되었던 시간과 그때 느꼈던 외로움은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영역에서 상당한 외상을 남겼다. 또한 유일한 가족인 모의 양육 태도는 참여자들의 분노와 불안을 키우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참여자1은 잦은 걱정이 많다. 특히 곧 있을 혹은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다. 그 중 엄마에 관한 걱정이 많았는데 사업을 벌이면 어쩌나 남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내면의 불안심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작은 부분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참여자2는 욕구불만을 느낀다. 모에게 화를 내지 못했고, 그 분노가 자신을 향했다. 이는 고등학교 무렵부터 행동 특성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자해 시도가 있었으며, 자살사고가 빈번해졌다.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 그래서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밤새 울었었어요. 진짜로”  
 “걱정이나 불안이 많다고들 해요. 정말 내일 어떻게 되면 어찌지, 엄마가 어떻게 되면 어찌지 사고치면 어찌지, 시험을 못 보면 어찌지,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아요.”(참여자1)

“고1 말부터 그때는 그냥 손으로만 목 조르고 그런 게 많았어요. 이제 짜증이 나는 게 그때도 이렇게 물건 던져버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엄마가 없으면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엄마가 있으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죠. 죽고 싶고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뭔가 작은 실행도 하게 되고 그러는 맨 밑에 있는 마음은 우울인 것 같아요.”(참여자2)

### (3) 적용

#### ①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함 / 유일한 조연자 엄마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을 진학하면서 적극적이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삶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심리 내적 어려움에 대해 누구에게 말하기 어렵고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참여자1은 중학교 무렵부터 상담실을 스스로 찾아가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진로 문제를 상의하였다. 상담자와 선생님께서부터 지지의 경험을 받으며,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상처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2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이러한 조연자를 찾지 못하고 유일한 엄마에게 정서적으로 더욱 밀착되어 갔다.

“주변에 어른이 없고 하니까. 고민스러운 것을 여기 상담실 와서 얘기하게 되고 혼자 답답한 거를 말할 하는게 도움이 되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나에 대해 더 다독이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조언을 구했고 따듯하게 말 해주시기도 해서 좀 미래의 설계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참여자1)

“엄마 결정이나 의견이 싫기도 하고 강압적이지만 엄마는 나를 위해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거역할 수 없어요.”  
“막막했어요. 사실 누구한테 말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 같아요.”(참여자2)

## ② 자립을 준비함 / 밀착된 관계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을 때 참여자1은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위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은 모를 탓하며 가난한 삶을 탓하며 살아왔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누군가를 탓하기만 하기에는 성장했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모를 정서적으로도 의지할 대상이기 보다는 같은 성인으로서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것이 아닌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사신 모를 조금씩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말하였다. 참여자1의 말투에서 통합과 수용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러한 생각의 전환 이면에 상담적 개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살이고 이제 스무 살이면 성인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성인이 되면 자기 일에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게 사는 건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인이 되면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했을 때 그걸 절대 모 때문이라고 탓을 할 수가 없죠. 엄마를 수용해야죠.”(참여자1)

참여자2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모가 대학 진학 시 과를 선택해 주었는데 현재 전공학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막연히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하지만 어떤 것도 진지하게 전공과목과 연결하지 못한다. 모는 또다시 다른 과로 편입해 볼 것을 권유하며 새로운 전공과목을 선택해 준 상황이다. 그런 모가 너무 싫지만, ‘엄마는 나를 위해서 저런 고민을 해 주는 거야’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다. 현재는 화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혼자서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하거나 약간의 자해 행동이 나오는데 모한테는 단 한 번도 들킨 적이 없다. 이는 정서적 독립이 되지 못한 상태로 모에게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높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부적응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자꾸 엄마를 탓하게 돼요. 나를 좀 더 잘하는 걸 더 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밖에 탓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건 안 된다고 할 것 같고. 말은 못 하겠어요.”(참여자2)

### ③ 수용과 통합 / 분열된 상태

참여자1은 분명 자신의 삶을 수용해 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이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발전적인 모습이 있었다. 또한 모에 대한 통합적 자세, 자신의 삶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다. 청년기까지의 삶 전체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 뿐인 가족인 모였다. 어린 시절 아동 폭력으로 느낄 만큼 때리고 소리 지르면서 혼욕했던 모를 기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홀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키웠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양가감정으로 심리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에 좋고 나쁨에 대해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삶에서 적응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미운 대상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하며, 내가 지금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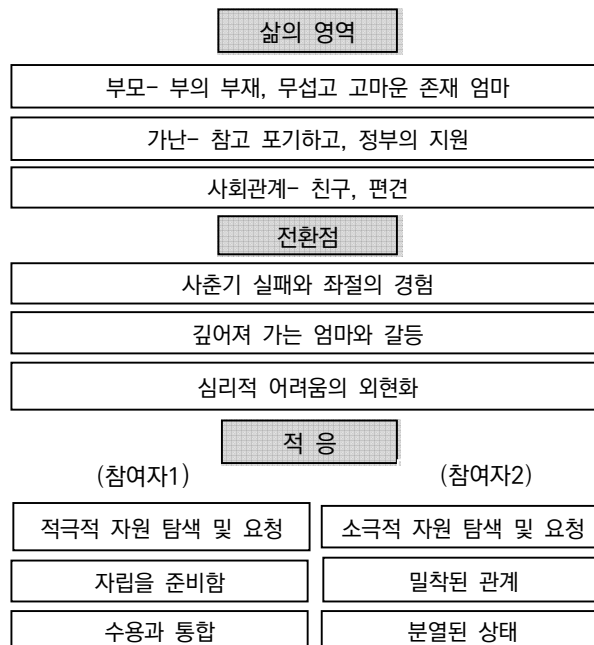
“어렸을 때는 저를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애뜻함을 느꼈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엄마가 좀 저의 환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가면서 많이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결국 지나고 나니까 좀 엄마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엄마가 저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냥 생각이 많이 달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치관 차이였고 지금은 조금 이제 엄마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참여자1)

참여자 2는 모에 대한 분리된 지각이 나타나고 있었다. 좋은 모만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가혹한 모는 분리해 내면서 내면화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모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부모상에서 통합을 이루지 못하여 모에게 향해야 하는 분노가 자신에게로 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자해 행동이 반복되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있다.

“엄마가 무섭게 하고 때리기도 했지만 다 나를 위해 그러는 거였으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죠. 다 나 잘되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가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울할 때면요. 벽돌로 내 머

리를 친 적이 있어요. 사실 진짜 죽고 싶은 거보다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알게 되는 거죠.” (참여자2)

종합적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참여자의 생애 주제 범주화와 행동화 도식

## 2)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분석

한 부모 가정에서 외동으로 자란 두 청년의 경험은 주변 친척과의 교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가족인 모와의 상호작용에 중점이 두어졌다. 부의 부재는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며, 외로움과 분노와 같은 감정적 어려움을 초래했다. 모와 갈등 상황 시 중재자가 부재한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었으며, 이는 적응적 삶에 영향을 미쳤다.

삶의 영역에서 모는 이들의 정서적, 경제적인 유일한 의지였다. 모에 대한 양가감정은 내적 갈등의 중심이 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모를 무서워하면서도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성장해 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참여자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공부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사회관계 범주에서는 가족 외에도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편견 없는 사회문화적 노력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환점에서는 사춘기의 어려움과 실패로 정서적 어려움이 외현화되었는데 갈등이 커지면서 참여자1은 대화가 감소하고 우울감을 느끼며, 모와의 갈등으로 진로 선택에서 포기를 했으며, 자주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참여자2는 강압적인 모에게 순응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심리적 어려움이 외현화되어 나타났다.

적응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게 되는데 참여자1은 모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담실을 찾아 자립 계획을 세우고 수용과 통합의 자세를 취하며 성공적으로 삶에 적응해 갔으나 참여자2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상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다.

### (1) 삶의 영역 분석

삶의 영역은 각 개인이 관계를 맺고 일상을 살아가는 구조를 의미하며, 동시에 그 차원을 내포한다. 두 참여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삶의 영역은 첫 번째로 부모에게서 비롯되었다. 부모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들의 역할과 관계 방식은 참여자들의 삶 전반에 걸쳐 구조를 결정하고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쳤다.

부의 부재는 참여자들의 삶과 성격 및 다양한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자끼리 살면서 부가 없어 안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경험했으며, 바쁜 엄마로 인해 늘 외로움에 노출되어야 했다. 모와의 갈등 시 중재자의 부재가 정서적 어려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모화' 및 '유모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한 부모인 모를 지나치게 걱정하며 부모 같은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의존하는 유아적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모는 부의 부재로 인해 부의 몫까지 혼용하였고 참여자들은 모를 늘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키워준 모에게는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좋고 싫은 감정이 공존했다.

둘째로는 가난이라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참여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유일한 가족인 모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했고 가난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돈이 부족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만남을 꺼리고, 얻어 먹는 자세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도움을 받는 존재로 인식했으나 그래도 대학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경제적인 도움 때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로 사회관계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느꼈던 편견은 많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 인식개선의 노력들이 참여자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졌으며, 적어도 두 참여자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편견과 차별은 보고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두 참여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부의 부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모와의 갈등과 가난, 사회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부의 부재는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초래했는데 경제적인 면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으나 가족 내 부족한 상호작용과 모와 갈등 시 증재자의 부재로 인한 다양한 갈등은 두 참여자의 정서적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부의 부재는 단순히 이혼이나 죽음과 같은 한 번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이들 생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

## (2) 삶의 전환 분석

삶의 전환은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개인의 삶이 물리적인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변 환경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참여자에게 삶의 전환은 주로 청소년기에 일어났다. 이때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에 대한 경험으로서 참여자들이 세상에서 한계를 느끼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 이때 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다.

참여자1은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모의 반대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다. 이때 좌절감을 크게 느끼면서 엄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했다. 반대로 참여자2는 진로 선택에 있어서 모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자신은 원치 않았으나 엄마와 학원 선생님이 의논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대학교 전공학과를 정할 때도 은근히 엄마가 원하는 과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때 제대로 반항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서 내면에 억울한 마음이 쌓여가고 이해받지 못하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홀로 방치되었던 많은 시간과 부가 부재했던 삶을 통해 참여자들의 내면에는 불안과 우울이 형성되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참여자1은 자주 불안을 느끼면서 엄마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나타났다. 참여자2는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자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면의 고통이 외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참여자2는 한 명의 부모인 모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 및 모와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증폭되는 전환점을 맞았다.

### (3) 적응 분석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한 부모 가정에서 외동으로서 홀로 방치되고 견디고 좌절한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해 갔다. 그러나 두 명의 참여자들은 적응의 속도가 다르며 더 적응적인 삶과 더 부적응적인 삶의 형태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참여자1은 중학교1학년 정도의 시기부터 학교 상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활용하여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구했다. 인터뷰 내용에서도 상담적 용어를 종종 사용하였는데 이는 참여자1이 그동안 상담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더 이상 모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거나 원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수용할 대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좋고 나쁜 엄마에 대한 통합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재한 증재자 및 좋은 어른을 스스로 찾아가고 상담자인 어른과 함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상담에 대한 성과가 참여자1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미래의 희망도 품게 되었으며, 모와 갈등도 줄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2는 모와 정서적으로 더 밀착의 형태를 띠면서 화의 감정이나 솔직한 의견은 말하지 못하는 등 부적응적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가족 내 부족한 상호작용에 대한 탐색과 좋은 어른을 찾는 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오직 하나의 가족인 모와 더 밀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립과 성장에 있어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모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말한 적이 거의 없으며, 화가 나면 자신을 해치거나 우울한 생각으로 빠져들면서 끊임없이 엄마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참여자1은 자립을 준비하고 모에 대한 수용과 통합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나 참여자2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에 대해 좋은 부분은 수용이 되나 나쁜 부분은 수용하지 못하는 분열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III. 닫는 글

### 1. 연구의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삶의 영역과 삶의 전환, 적응의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에 관한 연구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부모의 영향이었다. 특히 부의 부재와 가정 내 축소된 상호작용

은 이들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현재 느끼는 부정적 정서의 기원이 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모와 갈등 시 중재자의 부재, 정서적 공백 등을 야기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그 외의 체계적인 상담 지원이나 가정 내 갈등 상황 시 중재자의 역할 및 부에 대한 대리적 경험과 같은 내담자들의 심리 내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의 외동아들에 대한 조기 상담 개입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및 교회를 통한 갈등 시 중재자의 역할 및 부에 대한 대리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관계'의 영역의 분석에서 흥미롭게도 두 참여자 모두 한 부모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문성희와 이대균(2011)의 연구와는 반대 결과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노력 및 시민 의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한 부모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불이익이나 편견들을 줄여나가 본 연구 참여자들 이외에 더 많은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삶의 전환을 분석하며 살펴보았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트라우마가 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양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정 내 부재한 부와 강압적인 모의 태도 및 경제적 여건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하나의 사건으로 삶의 전환점을 맞은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생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전환점에서는 두 참여자가 사춘기의 부모 자녀 간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를 겪었으며, 특히, 참여자 1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걱정과 현재의 불안을 겪어 왔으며, '부모화'가 진행되어 모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는 남현주 등(2013)의 연구에서 한 부모 가정 자녀가 '부모화'를 경험하면 발달상의 육구 충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상담할 때, 자녀들이 '독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양가감정을 타당화하면서도 죄책감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지수, 이아라, 2020). 반면에, 참여자2는 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유아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Bogolub(1984)의 연구에서 언급된 한 부모 가정에서 모와 외동딸의 관계를 설명하며, '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유모화'를 초래하고 정신적 미성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된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이런 경우, 상담에서 모의 상담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부모교육과 더불어, 자녀가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분리 개별화의 과정을 건강하게 경험하고, 경제적, 정서적, 정신적인 자립을 스스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섯째, 적응의 차원에서 참여자들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자1은 모를 이해하고 좋고 나쁜 엄마에 대해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참여자2는 모에게 더욱 의존적이며, 자해 시도와 자살사고까지 경험하고 있다. 적응에서 두 참여자 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 것의 주요한 부분으로, 참여자1은 중학교부터 적극적으로 학교 상담센터를 방문하고 자라면서 모와 어려움이 생길 때 선생님께 상의하거나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기도 하면서 가정 내 좋은 어른의 기능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그 대상은 때로는 학교 선생님, 때로는 상담사가 그 역할을 해왔다. 그에 비해 참여자2는 힘든 일이 생기면 주로 집에서 혼자 지내거나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등, 자해 시도나 자살사고가 생기게 됐으며, 부를 대신할 좋게 기능하는 어른을 찾지 못하고 모에게 더욱더 밀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스스로 성장을 저해하고 자립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는 등 미성숙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 및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의 외동아에 대한 조기의 상담이 개입될 수 있도록 내담자 발굴 및 구체적 지원방안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교회 돌봄을 위한 제언

연구 결과 두 참여자는 아버지에 대한 대리적 경험과 ‘좋은 어른 대상’이 절실히 필요했다. 가난으로 인한 결핍보다 한 부모와의 관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 내 부족한 상호작용과 부재한 부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영역에 있어서 교회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 돌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회는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건강한 신앙 경험은 한 부모 외동이 분열된 심리상태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부모상을 형성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삶에 대한 소망을 고취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나 공동체의 리더는 부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좋은 어른’으로서의 부모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훈련된

조언자 그룹을 조직하도록 하며 이때 한부모 가정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위급한 사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회는 한 부모 가정의 지지적인 확대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묘사되는 교회 구성원들은 자녀 양육에 공동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 따라서 권사, 장로, 집사 등 교회의 어른들은 그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으로 돌봄과 사랑, 지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외로움에 취약한 한 부모 가정의 외동에 대해 교회의 또래 공동체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지지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중요한 심리적 지원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또래 공동체가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 등 부서 간 소통을 통해 또래 돌봄 사역을 형성하고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지지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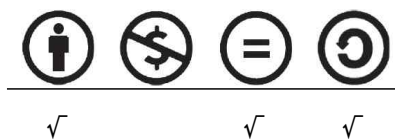
셋째, 교회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담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은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며 공동체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고, 시의적절한 상담은 그들의 적응과 성장에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회는 한 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가 초기에 개입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소그룹, 동아리 등 다양한 교회 활동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탐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상담 및 영혼 돌봄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제도적 차원의 준비는 연구 참여자들이 보였던 '부모화' 및 '유묘화'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한 가족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넷째, 교회는 한 부모 가정의 경제 사회적 필요, 한 부모 외동의 복지 및 교육 등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지체의 가난은 공동체의 헌신과 돌봄,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지체 가운데 한 부모와 외동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 관심을 두고,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대로 한 부모 외동의 성장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한 부모의 희생에 외동 자녀가 책임과 돌봄으로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는 한 부모 가정 중 한 모와 외동딸로 구성된 2인 가족을 중심으로 그들의 심리적 역동을 탐색하고 돌봄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 부 및 외 아들, 한 부 및 외동딸, 한 모와 외아들 간 가족 역동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두 부모가 모두 있으나 부부 간 갈등이 심한 경우 한 부모에 비해 부모 모두 있는 것이 자녀의 건강에 더 긍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외동 자녀들에 대한 경험의 본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부자, 부녀, 그리고 모자 가정에 중점을 두는 연구와 동일한 나이 그룹에 속하는 더 많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한 부모 가정을 향한 섬김에 유익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소망한다.

- 논문 투고일: 2024년 02월 01일
- 논문 수정일: 2024년 03월 01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03월 07일



## 【참고문헌】

- 김종희 (2011).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친 사회성 및 심리적 안녕감을 위한 다도명상 통합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3). 한 부모 가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 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http://dx.doi.org/10.18205/kpa.2013.18.1.007>
- 류금란 (2019). 회복탄력성이 높은 한 부모 가정 모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 이윤주, 김정화 (2008). 여성 한 부모 및 양부모 가정의 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소외감.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6(3), 15-23.
- 문성희, 이대균 (2011). 한 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313-335.
- 방소영, 최선희, 이수현, 황혜정(2013). 저소득 가정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부모 가정과 한 부모가정의 비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157-179. <http://dx.doi.org/10.14698/jkcce.2013.9.5.157>
- 박영범 (2022). 공감의 교회와 씬, 사림과 돌봄(교회의 미래, 미래의 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825(8), 104-107.
- 박진아 (2009). 한 부모 모자가정 유아와 모의 정신건강 및 모-자녀관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759-778
- 박현정, 이기연 (2015). 저소득 한 부모 자녀의 삶과 발달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31(2), 105-139. <http://dx.doi.org/10.16935/ejss.2015.31.2.004>
- 배호중, 정가원, 박미진, 선보영, 성경(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47.
- 신혜경 (2007).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지원을 위한 실천 분석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3(1), 25-50.
- 이의빈 (2022). 한 부모가정 양육 유형과 청소년 자녀 적응 유형 사이의 관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순 (2006). 한 부모 가정과 양부모 가정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비교연구. 전 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승하, 문수경 (2015). 한 부모 가정의 불안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의 집단 간 비교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 23(4), 843-862. <http://dx.doi.org/10.21479/kaft.2015.23.4.843>
- 유선희 (2023). 가족 생애 주기별 교회의 목회적 돌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연구원**, 523, 10-16.
- 전요섭 (2013).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 목회상담의 방향: 한 부모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방향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5, 1-35.
- 조혜경 (2019). 칼빈의 교회론이 돌봄(Caring) 개념에 주는 선교적 함의. **선교신학**, 53, 212-236. <http://dx.doi.org/10.14493/ksoms.2019.1.212>
- 최경일 (2007). 한 부모 가정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4), 145-168.
- 최진희 (2011). 형제구성에 따른 우울과 우울대응행동 비교. 경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1). **한부모가정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통계청.
- 현지수, 이아라 (2017). 한 부모 가정 성인 진입기 자녀의 심리적 독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470-508.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479>
-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 구본호 (2017).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1-252.
- 황은숙 (2015). 한 부모가족 가족지원서비스 현황과 과제. **한국한부모가정학**, 8(1), 1-33.
- Bayrakal, S., & Kope, T. M. (1990). Dysfunction in the single-parent and only-child family. *Adolescence*, 25(97), 1-7.
- Bogolub, E. B. (1984). Symbiotic mothers and infantilized only children: A subtype of single-parent family.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2), 89-101. <https://doi.org/10.1007/BF00757388>
- Calvin, J. (1986). **기독교강요** (김종흡, 신복운, 이종성, 한철하 역,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559 출판).
- Creswell, J. W., & Cheryl N. P. (2015). **질적연구방법론**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서울: 학지사. (원전 1998 출판).

Chan-Ob, T., & Boonyanaruthee, V., Pinyopornpanich, M., Kuntawongse, N., & Intaprasert, S. (2002). The birth order and personalities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the Medical Association of Thailand*, 85(1), 97-101.

Fiske, J. (1989).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New York: Routledge.

Hannan, C. (2018). The selective nature of lone parenthood: The case of Ireland. In L. Bernardi & D. Mortelmans (Eds.). *Lone parenthood in the life course* (pp. 303-322). London: Springer Open.

Khadaroo, J., & Ameerah, B. (2018). Parenting in single-child families and the well-being of adolescent only-children in UK.(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rwick.

Mandelbaum, D.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Maurya, A. K., & Parasar, A. (2015). The effect of single parent and both parents family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6(12): 1235-1237.

[Abstract]

## A Narrative Inquiry of One Child with a Single-Parent

Lee, Hyo Jung\* Kim, Kyu B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increase in modern single parent families and the resulting need for care, based on the description of the difficulties of single parent families and God's care mentioned in the Bible. The recent increase in divorce and low-birth rates in South Korea contributes to the rise of single parent families with one child, even in churches. Using Mandelbaum's narrative research method, this study analyzes personal experiences of two participants who are one child with a single parent. In 'dimensions', the research explores the areas of parents, poverty, and prejudic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how the absence of a father influences their lives. In 'turnings', it covers parent-child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parentification and infantilisation. In 'adaptations', it analyses differences between two participants in independence, conflict resolution and seeking help-resources.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discusses the need for early intervention in counseling for one child in single parent families and suggests several practices of church care for one child with single parents: providing spiritual support in meeting God the True Father, creating vicarious experiences with a good adult,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community, and arranging education for single parent families and practical institutional helps.

**Key words:** single-parent family, one child, narrative research, Mandelbaum, church care

---

\* Chongshin University, General Graduate School Doctoral Program in Biblical Counseling / Student

\*\* Cho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 Assistant Professor